



5면

백담에서 부처님을 만나다

# 전주매일

2022년 5월 6일 금요일 (음 4월 6일) 제3012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투시치료 전문

## 세인 신경외과 의원

환장 광 경 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4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전북지역 정책과제 대국민 보고회에서 송하진 전북도지사, 김병준 지역균형특위 위원장, 정운천 부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전북 국정과제 차질없이 이행”

###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정책과제 대국민 보고회

김병준 위원장 “관 중심에서 민간 자율혁신체제로 전환”  
송하진 도지사 “새정부 국정사업, 새만금개발 속도 더 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지난 4일 전북을 찾아 전북 지역 정책과제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차질없는 이행을 약속했다. 이번 보고회는 대통령 당선인의 지역균형발전 비전과 전북 공약을 전북도민에게 알리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보고회는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송하진 전북도지사,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운천 부위원장, 직능단체, 도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병준 위원장은 새 정부의 지역균

형발전 비전과 국정과제를 발표했고, 정운천 부위원장이 전북지역 7대 공공 15대 정책과제에 대한 설명과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김병준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를 모토로, 중앙 정부 주도에서 지자체와 지역사회 주도로, 관 중심에서 민간의 자율혁신체제로 지역발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지역균형발전 실현을 새 정부의 사명으로 삼겠다는 강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인수위 지역균형특위가 발표한 전북도 15대 정책과제는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 ▲새만금 특별위원회 대통령 직속 설치 및 특별회계 조성,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새만금 공항 도로 철도 및 산업단지 등 핵심 인프라 구축,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미래상용차 산업벨트, 자율주행 시험평가가 단지 구축,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및 그린수소 전주기 산업생태계 조성, ▲탄소소재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 및 국가산업단지 조성, ▲신산업 특화단지 조성, ▲전주~김천 동서횡단철도 및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확대 및 거점 조성, ▲농식품 웰니스 플랫폼 구축,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및 전북 스포츠 종합훈련원 건립, ▲생태문화 관광산업 육성, ▲동부권 관광벨트 구축 등이다.

송하진 지사는 “새정부의 지역균형발전 비전인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자율·희망의 지방시대’는 전북도가 오랫동안 바라고 이루어 한 방향이다”라며, “7대 공공 15대 정책과제를 통해 전북 도민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송 지사는 “새정부 지역의 5대 국정사업인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개발’이 국정과제 반영됨에 따라, 국제학교 및 대형 의료기관 유치,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과 새만금 특별회계 도입 등을 통해 새만금개발 속도를 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뿌리 깊은 불균형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부와 지방이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전북도는 새 정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 이행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유호상 기자

## 문화예술 통한 일상 회복 도모

### 도, 문화예술전문단체 지원 등 4개 사업 본격 추진

전북도가 도민들이 사회적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문화예술 향유를 통해 일상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4개 주요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지원사업은 ▲문화예술전문단체 지원사업, ▲문화복지 및 문화예술진흥사업, ▲문화예술일자리 지원사업, ▲신나는 예술버스 운영 등으로 전년대비 1억9,000만원이 증액된 23억9,000만원을 197개 단체에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58개 단체(전문단체 지원사업 9개, 문화복지사업 25개, 문화예술일자리지원사업 2개, 신나는예술버스 22개)가 신규 선정되면서, 신규단체의 역량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와 지역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예술제 및 공연·전시 등 문화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다. 도내 주요 문화예술행사인 전라예술제, 전북민족예술제, 전북도 미술대전 등을 지원하는 문화예술전문단체 지원사업은 전년대비 1억2,000만원이 증액된 14억8,000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에 코로나19로 위축된 문화예술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문화예술 소외지역을 찾아 다양한 소규모 예술공연 및 작은음악회 등을 선보이는 문화복지 및 문화예술진흥사업은 작년 대비 7,000만원이 증액된 29억6,000만원을 58개 단체에 지원한다. 아울러, 문화예술분야 지속가능한 일자리창출 및 지역창년 예술

인파 단체의 창작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지난 200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도내 공연예술분야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등 12개 단체, 청년예술인 67명에게 8개월간 월 1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도내 청년예술인들에게는 지역에 안착하고 창작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공연단체에게는 재정적인 지원으로 안정적인 공연무대를 통한 수익 창출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시·군 소규모행사 또는 문화소외지역을 찾아 다채로운 공연을 제공하는 ‘신나는예술버스 운영사업’은 올 5월부터 12월까지 80개 공연팀이 80회 공연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도민들에게 인기 있는 신나는예술버스 운영사업은 현재 시·군으로부터 공연 수요 조사 중이다. 이번 코로나 사회적거리두기 해제로 그동안 가장 위축됐던 현장 공연 위주의 연예예술분야 예술인 단체들에게 더욱 도움이 될 전망이다. 운동목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도의 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을 통해 일상에서 힘들었던 마음을 예술로 치유하고, 희망과 소확행의 메시지를 더욱 확산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전북도 지원사업은 물론, 국가의 각종 예술인 지원사업에도 예술인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 지역인재 공공기관 취업 성공사례 공유

도, 합동채용 설명회 개최  
코로나19 확산세 꺾여  
올해는 온·오프로 진행



전북도가 지역인재의 공공기관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 지난 4일 전북도청 공영장에서 ‘공공기관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지역인재의 공공기관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 지난 4일 ‘공공기관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북도청 공영장에서 유튜브 생중계 및 오프라인으로 개최된 이번 설명회는 1,000여명의 청년 구직자, 대학생 등이 참여해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국토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최하며, 전북도가 주관한 이날 설명회는 지역인재 채용제도를 설명하고 공공기관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청년의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이진공공기관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는 지난 2012년부터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매년 개최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 여파로 누리집을 통해서만 진행했지만, 최근 확산세가 꺾여 올해는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하게 됐다. 이번 설명회는 전북으로 이전한 국민연금공단, 한국전기인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식용연구원, 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익산) 등 6개 공공기관과 6개 대학(전북대, 군산대, 전주대, 원광대, 우석대, 전주비전대)이 참여했다. 각 기관의 채용담당자들은 기관-대학 협력교육(오픈캠퍼스)과 공공기관별 채용정보를 안내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에서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채용방법을 소개했다. 또한, 공공기관 지역인재 선배 취업

자의 사례 발표를 통해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실무자의 취업 경험을 공유했다. 아울러, 모의면접 시연 및 자문(컨설팅) 등을 통해 지역인재들에게 다양한 정보도 제공했다. 한편, 6개 공공기관의 2022년 채용규모는 청년실업사원(인턴) 236명을 포함한 880명 정도다. 상반기 채용은 5월 중 마무리되고 하반기 채용은 7월부터 11월까지 각 기관별로 채용공고를 내고 무차별(블라인드) 면접 및 NCS 기반 채용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전대식 도 혁신성장정책국장은 “도내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정착해 자신의 꿈과 재능을 펼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길 바란다”며 “전북도에서도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해 이진공공기관 및 기업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 ‘성년의 날 신(新) 풍속도 전주다운 스무살 14~15일

전주부채문화관·전주전통술박물관·최명희문학관은 오는 14~15일 이틀간 ‘성년의 날 신(新) 풍속도-전주다운 스무살’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 행사는 성년을 맞은 청년들에게 전주한옥마을의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고자 기획됐다. 이번 행사는 선착순 50명으로, 올해 스무살(2008년생)로 오는 13일까지 SNS를 통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063-231-1774)로 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다

온가족이 함께하는 건강체험,  
**강천힐링스파**